

# 주간케인

WEEKLY KANE

#08



해설지



## [주간케인00] 20.11 베이즈주의 지문 해설지

[주간케인]은 지문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우리 한 문장, 문단씩 같이 봅시다. 수업이라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 01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몇 가지 정해놓고 볼 겁니다.

1. 문장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는 그때그때 정리합시다.
2. 맥을 못 잡겠다면, 문단이 끝났을 때 몇 초만이라도 투자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 끊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우린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는 머리 속에 박을 겁니다.**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상식적인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시험장에선 뭐든지 해야죠. 제가 말한 게 배경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아직 조금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늘게 돼있거든요. 정말 무리하지 않은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사실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은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떼내는 것은 모순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상식' 수준입니다
5. **반응합시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반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나, 번외로 추가합니다

###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 02

제 수업의 특징은 지문 내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한계를 최대한 넓혀주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숨겨진 전제, 구조 등을 눈치챌 수 있게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그 운이 실현되는 빈도가 꽤 많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실전적인 측면도 철저히 챙기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절대 쓸모 없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태도를 교정하면 보이는 측면에서만 다룰 겁니다. 평가원이 이해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각 문단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내포된 답도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철저히 독서 공부의 측면에서 쓰셔야 합니다.

## 목차

- 지문 훑아보기

#01

#02

#03

#04

- 거시적 지문 정리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2. 지문 위 구조 파악

3. 실전 반응 정리

4. 지문 필터링 ; 흘려읽기

- 문제 뜯어보기

● **지문 훑아보기 : 내용 설명 구조 설명 태도 설명**

**#01**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인식'이니 우리의 직관과 부합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태도라면 T와 F 외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걸까요? 기출 지문들 중에 18.09 'LP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태도가 나오는 걸까요?

전통적이라는 이항대립의 쌍을 이루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의 반대는 현대적이죠?

앞으로 **현대적인 인식론자의 입장이 나오겠군요.**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아하. **T, F, ~T&~F** 라는 세 가지 태도가 있군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반면 ㉢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 흐름을 반전시킵니다. 이는 '베이스주의자'가 현대적 인식론자의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을 정도의 문제로 보는군요.

이처럼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인과관계죠?

<믿음의 정도가> →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한다}

관계를 잘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야 하는 건, **어떻게? - HOW?**

**그 관계의 개연성 및 필연성에 물음을 가지는 겁니다.**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스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지문 맥락으로 봤을 때 잡을 수 있는 둘 간의 대립코드. 저는 **연속성**으로 봅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세 가지 태도로만 믿음이 결정됩니다. 불연속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베이스주의자는 정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연속적인 정도. 따라서 믿음의 정도는 무한합니다. 이게 [01:05]의 '풍부함'이 가진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학문들은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먼저 파악되는 것부터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이후 이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점의 학문이 탄생하죠.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통적'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현대적'을 포함하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18.09 'LP논리'를 보면, '고전역학'을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해요. 우린 '현대역학'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문의 어떤 문장에도 '현대역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를 의미하는 '양자역학'이 나오죠. **'고전역학'을 보면서, '현대역학'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역학'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T&~F'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다는. 이를 그대로 이해하면 그냥 해당 명제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정도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안든다면? 늘 말했죠? **팩트만 짚으시다.**

지문 위 미시적 관계 표시법

[추간케인04] 20.06 경제 지문 해설지 참고해 주세요!

불연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지닌 전통적인 인식론자와 달리, 믿음의 태도에 연속성을 부여한 베이스주의자

본 지문을 독해하며 중요한 태도는 지문의 내용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적용해보는 겁니다.

지금 화제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론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도 이는 부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보들이 나올까요?

베이스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잡한 판단에선 어떻게 적용될지를 말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적 판단을 규정하는 내용이기때, 당연히 적용시 한계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나오겠네요.

## #02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우리가 새롭게 명제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는 어떨 때죠? 새로운 근거를 알게 될 때입니다.

아, 이제 복잡한 판단에서의 베이즈주의에 대해 소개하려나 봅니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납득 되죠?

여기서 질문. 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일까요?

참과 거짓,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극단성을 띠니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자는 정도의 개념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 이분법적 성질을 반영하는 거죠. 가장 강한 정도를 통해서요.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겠네요. 새로이 알게 된 근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조건화 원리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한번에 파악하기 힘들습니다. **늘 말했듯이, 문장의 구조를 봅시다.**

거시적으로는, ~할 때, -- 이다의 조건문입니다. 어떤 조건 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는 조건화 원리를 따르네요. 조건은 뭐죠? **주술구조 먼저 봅시다. 주체가 / 무엇을 /입니다.**

무엇 = 명제 A에 대한 판단  
안다 + 새로이

이정도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본 문장에서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건,

1. '왜 B가 A의 영향을 받는가?'

**관계에 대한 물음은 새로운 화제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2.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필연적입니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02:04]를 구체화시키네요. 이해를 돕습니다. **당연히 대응시키며 읽어야겠죠?**

본 문장 또한 복잡하여 거시적 구조부터 봐야겠네요. ~한다면, - 이다의 조건문.

조건 :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안다.

결과 : B의 믿음은 단순히 B 자체로 믿는 게 아니라 A가 조건이 되는 믿음이 된다.

내용을 추출하고 나니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예시네요. 앞 문장들을 잘 읽었으니 문제 없습니다. 이해한 내용과 대응만 시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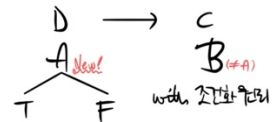
명제가 두 개 나왔네요. [내일 비가 온다], [오늘 비가 온다]

문장이 '있고'를 전후로 두 개로 나뉘지죠? 뒷 부분의 내용은 '[오늘 비가 온다]가 조건이 될때 [내일 비가 온다]를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대응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문은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해당 문장에 대해 구조도를 그리면 아래와 같겠네요.



[02:04]의 내용에선 크게 도움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정보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니까요.

여기서 질문. 왜 '만'이 붙었을까요?

A가 참이라는 것 만을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A가 아니라 a도 참임을 안다면? 그럼 A가 아니라 "a와 A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이 되겠네요. 또, 무수히 많은 명제들 중 A에만 주목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B와 관련 있는 명제들에만 주목해야 하나까요! ('대부분'과 '일부'의 이항대립)

실제로 시험장에서 저는 이 부분을 흘려읽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시'의 목적은 독자의 이해도 증진이고, 저는 이미 빠삭하게 이해 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각 명제의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무리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A : [오늘 비가 온다]

B : [내일 비가 온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연하죠!

너무 쉬워 보이는 내용.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이다**.

지금 지문에선 조건화 원리의 자세한 메커니즘에 대해선 서술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변하는가가 안나와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가 [내일 비가 온다]를 지지하는 게 맞아보여도, 지문에서 이 메커니즘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문에선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통해 믿음의 정도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의 상식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좀 더 복잡한 조건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시험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넘겨요. 관계만 잡고. →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개념!**

**명백한 출제 포인트! → 19번 : <보기> 문제**  
솔직히 느낌 올 겁니다. 본 지문은 쉬운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본 지문 내에선 그나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문장 자체에 대한 해석이 힘들었으니까요.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를 대표로 설명하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똑같이 적용된다고만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가 출제되겠죠?

복잡한 판단에서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

'조건화 원리'가 가지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정도 변화의 방향성을 '합리적 판단'에 따르게 한다.

역시, 첫 문단에서 예측한 그대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을 보여주거나, 베이즈주의가 보여주는 한계를 제시하겠네요.

복잡한 문장을 독해하는 체계적인 태도만 있었으면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 \*[02:09]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수능 직후의 넘쳐나는 잉여 시간에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혼자 고찰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요, 믿음의 대상은 애초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대상'에 국한됩니다. 반면 행위는 그 자체가 애초에 팩트예요. 이미 일어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애초에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화 원리는 팩트가 아닌 '논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대상'을 다루는 원리임을 나름 '친절하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다면 이 내용이 18번의 선지 중 하나로만 나왔겠죠? 아님 이 문장을 지문에서 지우고 18번의 2번 선지를 주던가요.

### #03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역시, **예외가 나오는군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합니다.**

조건화 원리에 ⑥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관련 없는 명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시를 들어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03:02] 자체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⑦본다.

넵. 그렇네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건 무시한다.

간단하네요!

예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돕는 예시.

두 번째는 재진술의 예시.

예시의 목적 자체가 지문의 내용 이해를 돕는 것이지만, 지문 난이도에 따라 예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문 내용이 어려우면 전자로, 쉬우면 후자로 예시를 대하시면 됩니다. 본 문단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베이즈주의가 적용될 때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새로운 태도'.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또한 예측한 대로! 어렵지도 않았습시다. 내용 자체는 익숙하거든요.



## #04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3문단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3문단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로 '실용적 효율성'을 소개합니다.

단어만 봐도 어떤 말을 할지 감이 오시죠?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일단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행위는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예시도 납득 갑니다.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3문단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넵. 그렇습니다.

수학, 논리학, 철학 등은 아주 당연한 판단도 증명하고 근거를 세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용적 효율성'이란 개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지주의가 그것의 예외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3문단 자체로 당연한 내용이라 그런갑다 했는데 4문단으로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학이나 철학이 당연한 내용도 막 증명하고 근거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 거시적 지문 정리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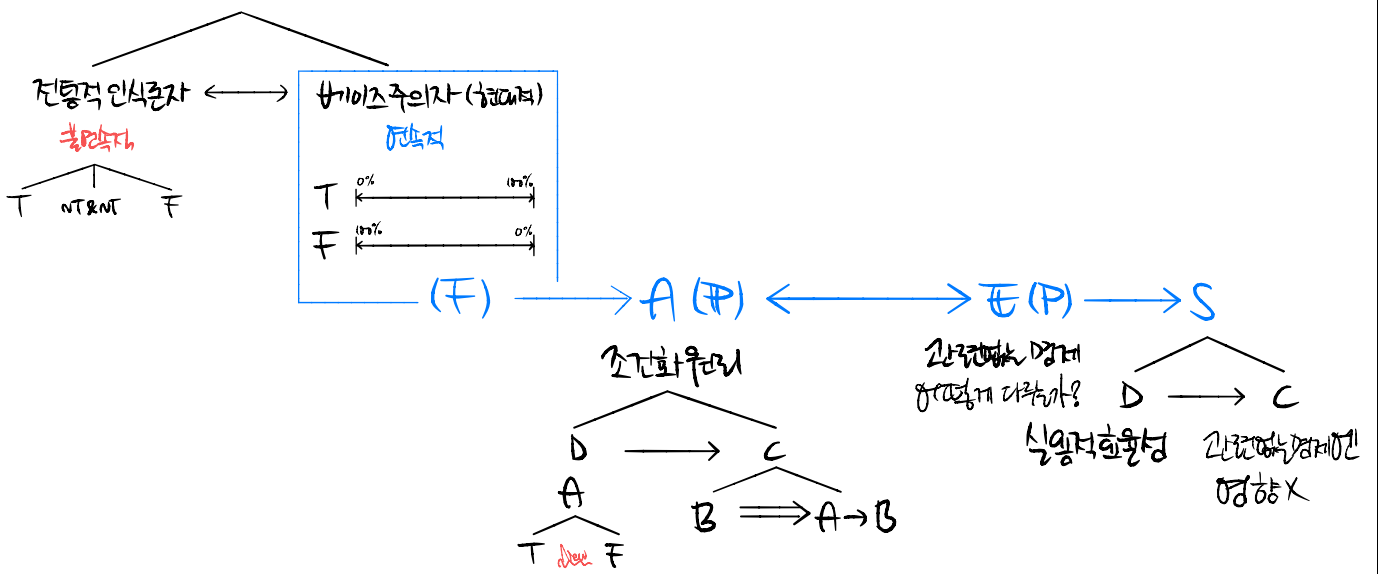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2. 지문에서 학습한 점들 정리

<hr/>	
➔	

